

2 가구와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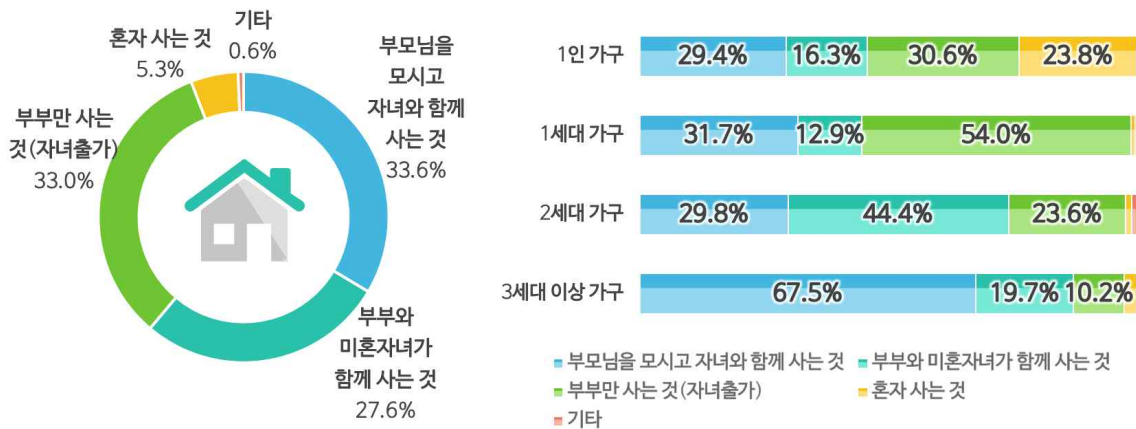
1) 이상적인 가족구성 형태 (공통)

이상적인 가족구성은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와 함께 사는 것(33.6%)」

○ 장성군민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족구성 형태는 「부모님 모시고 자녀와 함께 사는 것 (33.6%)」, 「부부만 사는 것(자녀출가) 33.0%」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와 함께 사는 것(37.5%)」, 여자는 「부부만 사는 것 (자녀출가)(34.5%)」을 선호함
- 세대구성별로 1인가구와 1세대 가구는 「부부만 사는 것」, 2세대 가구는 「부부와 미혼자녀가 함께 사는 것」, 3세대 이상 가구는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선호함

〈그림 2-1〉 이상적인 가족구성 형태



〈표 2-1〉 이상적인 가족구성 형태

(단위: %)

	계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와 함께 사는 것	부부와 미혼자녀가 함께 사는 것	부부만 사는 것 (자녀출가)	혼자 사는 것	기타
2016년	100.0	33.6	27.6	33.0	5.3	0.6
남자	100.0	37.5	27.0	31.5	3.1	0.9
여자	100.0	29.5	28.2	34.5	7.5	0.3
15~29세	100.0	26.3	42.9	22.3	4.9	3.7
30~39세	100.0	31.2	45.3	21.7	1.8	-
40~49세	100.0	35.6	42.1	19.9	2.4	-
50~59세	100.0	42.7	22.8	31.6	2.9	-
60세 이상	100.0	32.1	12.4	46.7	8.8	-
1인 가구	100.0	29.4	16.3	30.6	23.8	-
1세대 가구	100.0	31.7	12.9	54.0	0.9	0.4
2세대 가구	100.0	29.8	44.4	23.6	1.2	1.1
3세대 이상 가구	100.0	67.5	19.7	10.2	2.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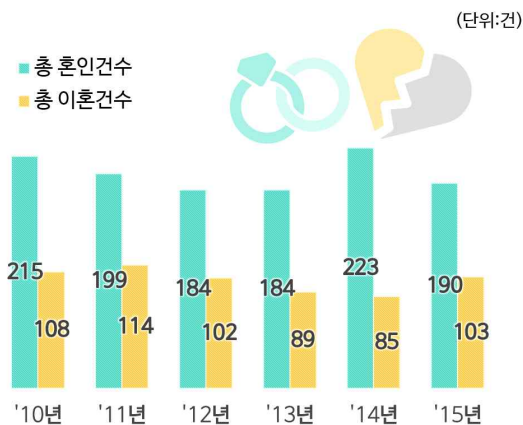
자료: 2016년 장성군 사회조사

2) 혼인 및 이혼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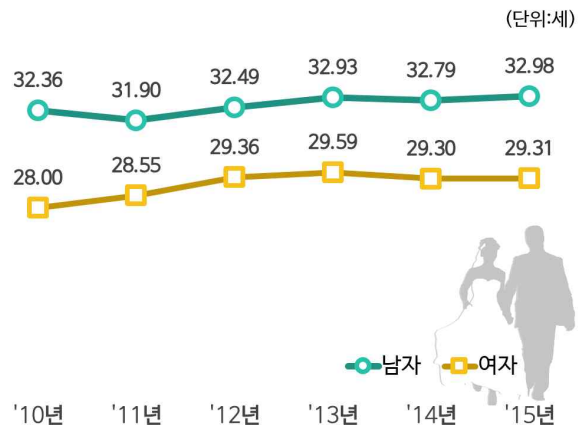
전년에 비해 혼인건수는 33건(14.8%) 감소, 이혼건수는 18건(21.2%) 증가

- 2015년 혼인건수는 190건으로 전년(223건)보다 14.8% 감소
 - 평균초혼연령은 남자 32.98세, 여자 29.31세로 남자의 초혼연령은 전년(32.79세) 보다 0.19세 높아지고, 여자의 초혼연령은 전년(29.30세)보다 0.01세 높아짐
- 이혼건수는 103건으로 전년(85건)보다 18건(21.2%) 증가

〈그림 2-2〉 혼인 및 이혼



〈그림 2-3〉 평균초혼연령



〈표 2-2〉 혼인 및 이혼

(단위: 건, 인구천명당 건, 세)

	총 혼인건수		평균초혼연령		총 이혼건수	
	혼인건수	조혼인율	남자	여자	이혼건수	조이혼율
2010년	215	4.7	32.36	28.00	108	2.3
2011년	199	4.3	31.90	28.55	114	2.5
2012년	184	4.0	32.49	29.36	102	2.2
2013년	184	4.0	32.93	29.59	89	1.9
2014년	223	4.9	32.79	29.30	85	1.9
2015년	190	4.1	32.98	29.31	103	2.2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편)」 각년도

1) 조혼인율(%) = (1년간 총 혼인건수/연앙인구) ×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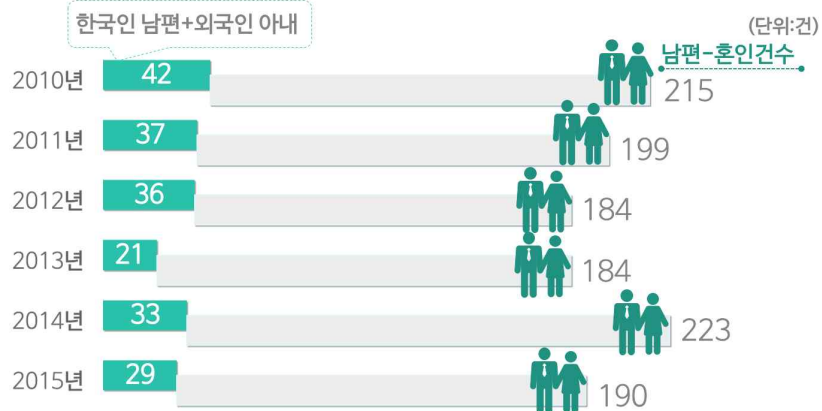
2) 조이혼율(%) = (1년간 총 이혼건수/연앙인구) × 1,000

3) 외국인과의 혼인 [기타]

「한국인 남편+외국인 아내」 혼인 2014년 대비 4건(12.1%) 감소

- 외국인과의 혼인은 2015년 29건으로 2014년(33건) 대비 4건(12.1%) 감소
 - 「한국인 남편+외국인 아내」의 혼인은 29건, 「한국인 아내+외국인 남편」의 혼인은 거의 없음
-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구성비는 15.3%로 전년보다 0.5%p 증가함

〈그림 2-4〉 외국인과의 혼인



〈표 2-3〉 외국인과의 혼인

(단위: 건)

	남편-혼인건수 ¹⁾	한국인 남편+외국인 아내	아내-혼인건수 ²⁾	한국인 아내+외국인 남편
2010년	215	42	162	...
2011년	199	37	159	...
2012년	184	36	151	...
2013년	184	21	148	...
2014년	223	33	175	...
2015년	190	29	163	...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편)」 각년도

주. 1) 남편-혼인건수, 한국인 남편+외국인 아내 : 행정구역을 남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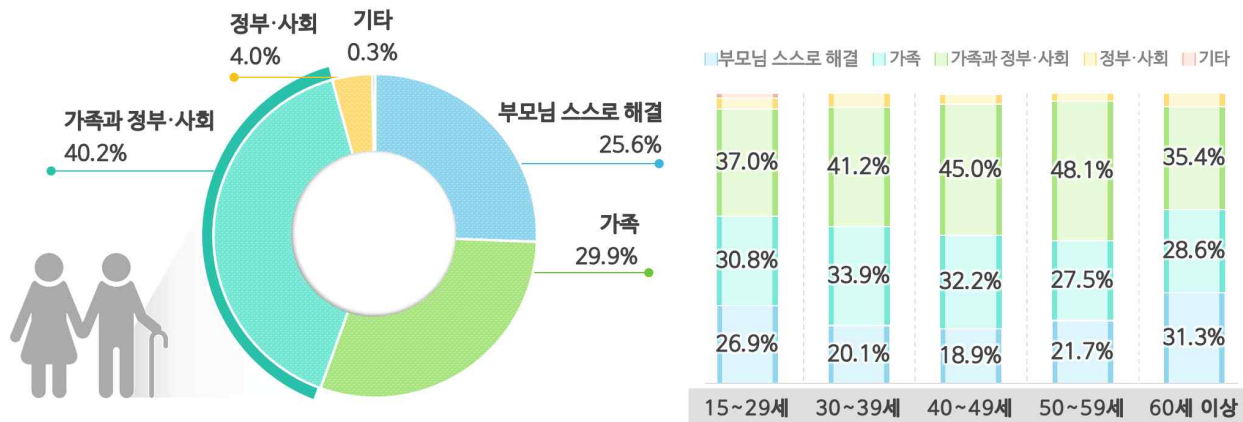
2) 아내-혼인건수, 한국인 아내+외국인 남편 : 행정구역을 아내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집계
· 수치가 5건 이하인 경우 ...로 표시함

4)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공통)

부모 부양은 「가족과 정부·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많아

- 부모의 노후를 「가족과 정부·사회」가 돌봐야 한다는 의견이 40.2%로 가장 많았고, 「가족(자식, 며느리, 사위 등)」 29.9%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부권, 북부권, 서부권은 「가족과 정부·사회」라는 생각이 가장 많았고, 광주인근권은 「부모님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음
 - 성별, 연령별 모두 「가족과 정부·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많음

〈그림 2-5〉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표 2-4〉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단위: %)

	계	부모님 스스로 해결	가족(자식, 며느리, 사위 등)	가족과 정부·사회	정부·사회	기타
2016년	100.0	25.6	29.9	40.2	4.0	0.3
중부권	100.0	19.9	35.2	39.3	5.7	-
북부권	100.0	22.6	26.8	45.7	4.9	-
서부권	100.0	25.6	24.5	45.6	3.0	1.2
광주인근권	100.0	44.1	27.8	27.9	0.2	-
남자	100.0	23.4	32.2	39.7	4.1	0.6
여자	100.0	27.9	27.6	40.7	3.9	-
15~29세	100.0	26.9	30.8	37.0	3.8	1.6
30~39세	100.0	20.1	33.9	41.2	4.9	-
40~49세	100.0	18.9	32.2	45.0	3.5	0.4
50~59세	100.0	21.7	27.5	48.1	2.7	-
60세 이상	100.0	31.3	28.6	35.4	4.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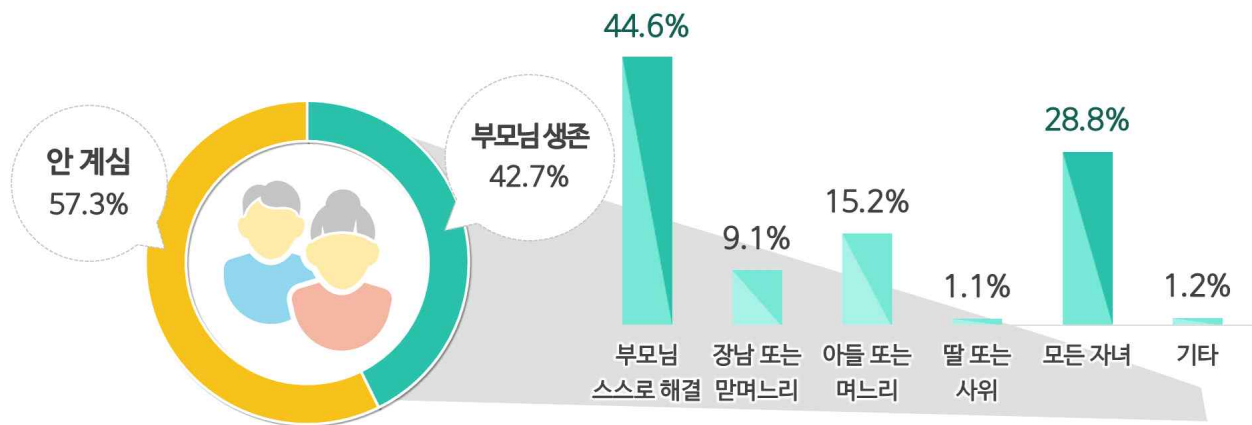
자료: 2016년 장성군 사회조사

5) 부모 생활비 주 제공자(19세 이상 가구주) (공통)

부모님 생활비는 주로 「부모님 스스로 해결(44.6%)」이 가장 높음

- 19세 이상 가구주의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다」는 42.7%이고, 부모의 생활비는 「부모님 스스로 해결」한다가 4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모든 자녀(28.8%)」, 「아들 또는 며느리(15.2%)」 순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부권, 서부권, 광주인근권은 「부모님 스스로 해결」, 북부권은 「모든 자녀」가 주로 부모님 생활비를 부담한다고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 이하는 「부모님 스스로 해결」하고, 50대 이상은 「모든 자녀」가 부모님 생활비를 부담한다고 나타남

〈그림 2-6〉 부모 생활비 주 제공자



〈표 2-5〉 부모 생활비 주 제공자(19세 이상 가구주)

(단위: %)

	계	부모님 생존	소계	부모님 스스로 해결	장남 또는 만며느리	아들 또는 며느리	딸 또는 사위	모든 자녀	기타	안 계심
2016년	100.0	42.7	100.0	44.6	9.1	15.2	1.1	28.8	1.2	57.3
중부권	100.0	44.3	100.0	46.3	6.9	16.1	0.9	27.1	2.7	55.7
북부권	100.0	25.0	100.0	32.0	6.4	23.6	2.9	35.2	-	75.0
서부권	100.0	54.8	100.0	48.5	9.0	12.8	0.8	29.0	-	45.2
광주인근권	100.0	34.2	100.0	36.4	21.3	12.1	1.2	29.1	-	65.8
남자	100.0	50.0	100.0	46.1	7.7	14.5	0.5	30.2	1.0	50.0
여자	100.0	23.2	100.0	36.0	17.3	19.1	4.6	20.4	2.6	76.8
19~29세	100.0	100.0	100.0	79.1	11.5	9.4	-	-	-	-
30~39세	100.0	98.1	100.0	68.2	-	9.6	1.4	20.8	-	1.9
40~49세	100.0	84.1	100.0	46.4	5.7	16.1	0.9	30.9	-	15.9
50~59세	100.0	53.3	100.0	26.6	17.0	17.6	1.6	34.0	3.2	46.7
60세 이상	100.0	11.2	100.0	14.2	14.3	21.0	0.9	46.7	2.9	8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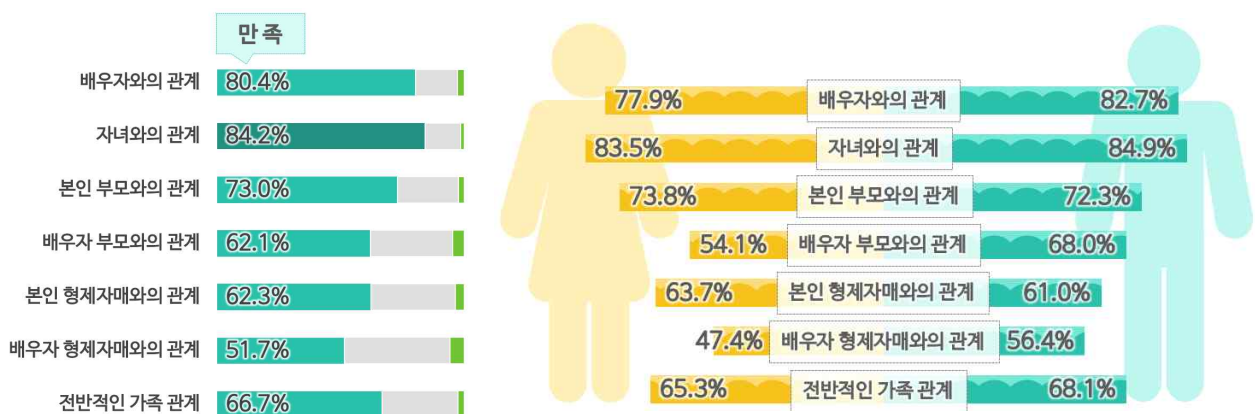
자료: 2016년 장성군 사회조사

6) 가족관계 만족도 (공통)

가족관계 「만족」 「자녀와의 관계」가 84.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장성군민의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는 66.7%로 나타났으며, ‘자녀와의 관계(84.2%)’가 가장 높고,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51.7%)’가 가장 낮게 나타남
- ‘배우자의 관계’의 「만족」은 80.4%이며, 남자(82.7%)가 여자(77.9%)보다 높게 나타남
 - ‘자녀와의 관계’의 「만족」은 84.2%이며, 남자(84.9%)가 여자(83.5%)보다 높게 나타남
 - ‘본인 부모와의 관계’의 「만족」은 73.0%이며, 여자(73.8%)가 남자(72.3%)보다 높게 나타남
 -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의 「만족」은 62.1%이며, 남자(68.0%)가 여자(54.1%)보다 높게 나타남
 - ‘본인 형제자매와의 관계’의 「만족」은 62.3%이며, 여자(63.7%)가 남자(61.0%)보다 높게 나타남
 - ‘본인 형제자매와의 관계’의 「만족」은 51.7%이며, 남자(56.4%)가 여자(47.4%)보다 높게 나타남
 - ‘전반적인 가족 관계’의 「만족」은 66.7%이며, 남자(68.1%)가 여자(65.3%)보다 높게 나타남
- 본인 부모(73.0%) 및 형제(62.3%)에 비해 배우자 부모(62.1%), 배우자 형제자매(51.7%)의 「만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본인 부모와의 관계」 「만족」 비율은 73.0%로 남자(72.3%), 여자(73.8%)이고,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는 남자(68.0%), 여자(54.1%)로 남녀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7〉 가족관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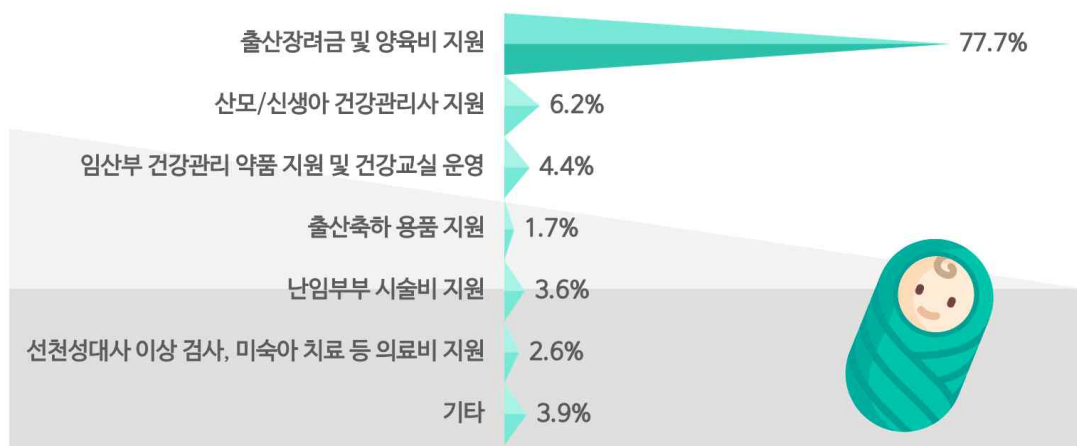


7)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의견 (특성)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77.7%)」 필요

-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장려 사업 중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77.7%)」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6.2%)」, 「임산부 건강관리 약품 지원 및 건강교실 운영(4.4%)」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모든 층에서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응답

〈그림 2-8〉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의견



〈표 2-7〉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의견

(단위: %)

	계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약품 지원 및 건강교실 운영	출산축하 용품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미숙아 치료 등 의료비 지원	기타
2016년	100.0	77.7	6.2	4.4	1.7	3.6	2.6	3.9
북부권	100.0	76.3	4.5	5.1	1.0	5.9	2.9	4.3
북부권	100.0	87.3	1.1	2.3	1.7	3.1	1.9	2.5
서부권	100.0	76.8	6.2	2.8	2.9	1.4	3.9	5.9
광주인근권	100.0	72.9	15.9	7.4	1.6	1.1	0.2	0.9
남자	100.0	79.1	5.5	3.7	1.8	2.7	2.9	4.3
여자	100.0	76.2	6.9	5.2	1.6	4.4	2.2	3.5
15~29세	100.0	72.9	8.1	7.7	2.4	3.4	-	5.4
30~39세	100.0	74.6	8.9	4.2	-	4.1	5.1	3.0
40~49세	100.0	73.7	3.1	5.5	0.8	4.8	6.2	5.8
50~59세	100.0	76.3	7.6	5.8	1.3	4.1	1.6	3.4
60세 이상	100.0	82.8	5.1	2.0	2.5	2.7	1.9	3.0

자료: 2016년 장성군 사회조사